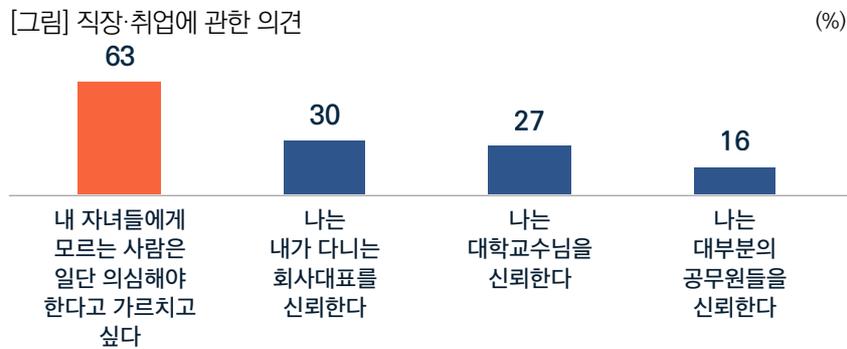


2

한국인의 의심병

● ‘내 자녀에게 모르는 사람은 일단 의심하라고 가르치고 싶다’ 63%

- 한국인은 대부분의 직업인에 대해 심지어 전문가들도 잘 믿지 못하는데, 어떤 직업군에 대한 신뢰도도 50%를 넘지 못함
- 즉 각각의 신뢰도를 보면, 회사 대표 30%, 대학교수 27%, 공무원 16% 등임.
- 이러한 불신 문화는 자녀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 ‘내 자녀들에게 모르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다’에 대해 63%가 ‘그렇다’고 대답함



*자료 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“사회적 신뢰 관련 인식 조사”, 2020.02.12, (전국 만 20~59세, 온라인 조사, 2,000명, 2020.02)

● 한국인의 의심병!

- 평소 대화 도중 상대방의 말이 사실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32%로 나타났는데, 3명 중 1명 정도는 대화하면서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남
- 정보를 습득하는데 정보의 출처에 대해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있는데, 언론의 뉴스의 경우 절반(51%)이 사실인지 의심하고 있으며, ‘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라면 믿어도 된다’고 생각하는 사람이 26% 밖에 되지 않음, 또한 ‘정부 발표 내용’에 대해서도 41%가 의심하는 것으로 나타남



*자료 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“사회적 신뢰 관련 인식 조사”, 2020.02.12, (전국 만 20~59세, 온라인 조사, 2,000명, 2020.02)